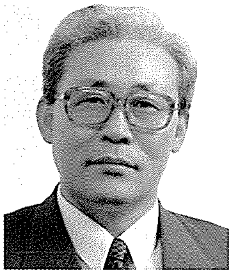
눈은 생명의 원천

눈은 생명의 원천이다. 모든 동물은 눈·코·귀·혀·살갗이라는 오관(五官)을 동원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은 이 오관중 받아들이는 감각의 90%를 눈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다.



權伍吉
〈강원대 교수/생물학〉

모든 생물들은 공격과 방어라는 투쟁의 연속이라 여기에는 자극을 받아 반응하는 감각기관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도 같아서 눈, 코, 귀, 혀, 살갗이라는 오관(五官)을 통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며 살아간다. 보고, 냄새 맡고, 소리 들으며, 먹이를 골라 먹으며(독이 있는 것이 많다) 피부에 와닿는 모든 감각을 이 다섯기관이 도맡아 한다. 그 중에서도 눈(시각)에 거의 모두를 의존하는 동물이 사람인데, 받아들이는 감각의 90%를 이 눈이 해낸다니 아마도(분명히) 사람이 서지 않고 기어다녔다면 개처럼 귀(소리)와 코(냄새)에 의존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눈은 어느 기관보다 혹사당하고 있는데 바로 이 글(활자)을 읽는 것도 눈을 괴롭히는 행위로, 꼭 알아둬야 할 것은 사람의 눈 구조가 신문을 읽고, TV를 보며 또 컴퓨터치라고 만들어진 것이(절대로) 아니고 수렵생활용이라는 것이다. 과일따고, 뿌리캐고, 토끼몰이하는데 쓰도록 창제되었음을 잊지 말아서 먼 산을 자주 보고 하늘에도 눈을 맞춰줘서 눈의 근육을 골고루 써야 한다. 가까운 것에만 길들이다보니 근시안이 되어버려 다른 동물이 쓰지 않는 안경을 걸치게 된다.

눈의 이야기는 끝이 없는 것이라, 여기서는 홍채(虹彩, 눈조리개, iris)에 초점을 맞춰본다. 카메라는 사람 눈을 모방한 것으로(눈이 카메라 닮았다는 말은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임) 조리개로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것을 안다. 홍채는 사람마다(민족에 따라) 색이 다 다르며, 결합조직이 어레미(얼금체)처럼 얽혀있고, 더 상세하게 확대해 보면 콜라겐성 섬유, 작홈, 고리모양, 코로나 형태 등 탄생 전에 생긴 것이 변함없이 평생을 가는데 일란성쌍생아까지도 홍채 형태가 다르다고 한다. 사람이 모두 다 목청이 다르고 지문, DNA지문, 사인(Signature)이 다른 것이나 꼭 같다.

본론은 나중에 쓰기로 하고, 홍채의 색은 대체적으로 황색인종은 갈색, 흑인은 검은 색, 백인은 멜라닌 색소가 없어서 빛의 난반사로 푸르스름하다. 홍채 안에 검은 눈동자(동공, 瞳孔, Pupil)가 있으니 그 구멍을 통해 빛이 들어가는데 센 빛에서는 홍채가 커지면서 동공을 작게하고 빛이 약하면 동공이 커진다.

뚱딴지같은 소리지만 피에 흘러다니는 암세포(암세포는 다른 곳으로 전이하는 미친 세포다)를 꼬집어 내는 방법은 없을까. 피 한방울로 암의 진단이 내려지니 말이다. 유사한 실험 내용은 다음 기회에 쓰기로 하고, 은행건물 입구나 집 안에 들어갈 때 열쇠나 카드, 지문을 쓸 것 없이 기계만 쳐다보면 5초 내로 카메라(Automatic Teller Machine, ATM)가 저장된 홍채의 재료와 비교하여 문을 열어주게 된다고 하니(금년내로 실용화 될 것이라 한다) 도둑들은 이제 굶어죽게 되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홍채는 무이(無二)하여 쌍둥이가 와도 열어주지 않는단다.

눈은 발생과정을 보면 뇌에서 생겨난다. 그래서 뇌가 유일하게 두개골을 뚫고나온 것이 눈으로 그래서 한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뇌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뇌를 마음의 창이라 하는 것으로 탁구공만한 그것에 모두가 들여다보이니 지능(IQ)도 눈에 비쳐보인다. 눈에는 건강(영양상태)도 들어있는 것이라 북한 아이들 사진을 볼 때도 눈부터 살펴보는 것이다. 그 아이들은 하나같이 굶주려 눈이 퀭하게 들어가있으니 아마도 그들 눈에는 딱정벌레가 왔다갔다 할 것이다. 눈, 특히 홍채에는 늙은이의 덕기(德氣), 젊은이의 패기(霸氣), 어린이의 치기(稚氣)가 가득차 있어 속마음의 눈을 닦으면 눈의 거울도 맑아진다. ST